



총회 사무국

J. 허버트 넬슨, II

총회 정서기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기사건에 대한 성명서

지난 주말 피츠버그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TREE OF LIFE 회당에서 열한 명의 예배자들이 숨진 무의미한 총격 사건에 대한 소식은 우리나라의 고통스런 비극입니다. 미국장로교회는 이 폭력적인 혐오 행위로 인해 전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무의미한 슬픔을 겪고 있음을 깊이 슬퍼합니다. 우리는 제프리 마이어스 랍비와 그 상황에서 고통의 깊이를 친밀하게 알고있는 그의 회중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함께하며 이제는 우리의 공통된 슬픔을 통해 그들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종교 간 파트너십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대화, 분별력 및 화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이어스 랍비는 피츠버그와 미국 전역의 장로교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종교 간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소명이 신앙의 일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관계의 결과는 무관심을 피하고 사랑을 포용하는 신앙을 장려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공동 소명에 대한 계속되는 사랑과 단결입니다. 1944년에 세계 제 2차 대전이 여전히 격렬했지만 우리 총회는 생각, 연설, 명백한 행동 등으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랍비들과 회당 회원들과의 이해와 우호적 관계를 키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랍비 마이어스와 함께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는 미워하는 말"의 종식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 무의미한 슬픔을 겪고 폭력적인 증오의 행동이 있음을 깊이 슬퍼합니다. 우리는 생명 나무 유대교 회원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현재의 고통의 깊이를 잘 알고있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대해 슬퍼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국가의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무의미한 폭력 행위에 대해 함께 슬퍼하며 피츠버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단으로서 우리는 폭행 무기 판매의 종식을 요구합니다. AR-15 스타일의 소총으로 무장하고 회당에 들어간 총잡이는 거리와 다른 공공 장소에서 대량 살상으로 사용되는 전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미국에서 구매, 판매 및 사용되는 폭행 무기 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행동이 미국에서 대량 살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우리 유대인 친구들,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하신 분께서 치유를 통해 우리를 함께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와 깊고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에서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장로교회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에게 살롬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이 허버트 J. HERBERT NELSON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